

방광-산동 구간

■ 코스 지도

고가와 옛 마을의 정취가 어우러지면서 구례 농업의 현실과 꿈이 드러나는 코스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 구분 | 지명 | 주요내용 | 비고 |
|----|-----------|--------------------------|-----------|
| 1 | 구간소개 | 탐동-산동 구간 소개 | |
| 2 | 방광마을 | 옛 구례의 중심지 방광마을과 참새미골 사업 | 민속 |
| 3 | 오동나무군락 | 오동나무에 대하여 | 생태 |
| 4 | 상대마을 | 못생명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상대 감발 | 생태 |
| 5 | 대전리 석불입상 | 석불입상의 역사 | 민속자료./문화재 |
| 6 | 남악사터 | 남악사터 | 민속자료 |
| 7 | 당동마을 | 구례예술인마을인 당동마을 이야기 | 민속자료/문화재 |
| 8 | 할머니 당산나무 | 할머니 당산나무 | 민속자료 |
| 9 | 할아버지 당산나무 | 돌무덤과 호환 이야기 | 민속/생태 |
| 10 | 구리재 | 불로초의 이름을 딴 지초봉 | 생태 |
| 11 | 구례수목원 | 구례 수목원과 숲속길 | 생태 |
| 12 | 탐동마을 당산나무 | 당산제에 대한 기억과 잃어버린 마을의 기록 | 민속/생태 |
| 13 | 탐동마을 탐 앞 | 탐동마을 유래와 둘레길에 주민들의 생각 | 민속자료/문화재 |
| 14 | 산동면 | 지리산 온천과 마을 | 마을 |

1. 구간 소개

특별히 목표를 두고 걷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작년 이맘 때였던가. 점점 늘어만 가는 나이와 변함없는 현실에 힘들어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지리산 둘레길이다. 길을 걸으며 자연과 사람을 만나고 더불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자 했다. 때론 힘들었지만, 걸어왔던 그 거리만큼 나를 알게 되었고, 그 만큼 성숙해진 나를 느끼고 있다.

어느덧 마음속에 가장 아껴둔 구례의 방광-산동 구간을 걷게 된다.

넉넉한 구례의 들판을 가로질러 건다가도, 어느새 지초봉을 에둘러 가는 숲길을 만나기도 할 것이다. 탑동마을과 난동마을, 그리고 산동까지, 지리산 산촌마을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조선시대의 남약사 터와 대전리 석불입상도 볼 수도 있다. 더불어 구례 수목원과 생태 숲, 그리고 당동의 화가마을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변하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례의 방광-산동 구간을 아껴둔 이유가 이렇듯 지리산 둘레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가장 아껴 두었던 구간이라서 그런지 설레임이 먼저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그럼, 이제 떠나볼까.

2. 방광마을

천은사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어진다.

주위의 경관처럼 예쁜 이름을 가진 참새미골은 이 계곡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방광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개발사업의 공식명칭이기도 하다.

‘지리산 참새미골’의 참새미는 영어의 ‘웰빙’과 비슷한 뜻의 순우리말 ‘참살이’를 의미하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곳 참새미골의 계곡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도로를 따라 ‘천은제’ 방향으로 약간 걸어가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황토한옥펜션도 있으니, 참새미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농촌체험을 즐기며 쉬어갈 수도 있겠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름이기도 한 방광마을은 옛날에 판관이 살았다 하여 판관마을이라고 불렀는데, 판관이 판괘이로 변형되었다가 오늘날의 방광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방광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필요한 경비를 만들기 위한 농지였던 둔전이 방광마을 안에 있었다. 아직까지 마을 앞에 ‘시랑이들’, ‘객사들’, ‘옥이들’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부터 구례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마을이었던 셈이다.

마을 동쪽으로는 천은사가 있고, 그 아래의 ‘젓들 삼거리’는 옛날 남원과 구례의 경계지점이었다. 그곳에는 1930년대까지 주막이 성시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술도가들이 즐비했고 소리하는 사람과 기생들을 비롯해 나그네들과 나무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는 매일 천여 명의 나무꾼들이 천은사 뒷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자녀들의 학비에도 크게 도움을 주어 ‘천은대학’이라는 말도 생겨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나무를 땀 일이 없으니, 이러한 풍경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없다.

그 대신 해마다 이곳 참새미골을 방문하는 피서철 행락객들과 둘레길 여행객들이 방광마을의 풍경을 바꾸고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방광마을엔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3. 오동나무 균락

숲길을 따라 걷다가, 문득 길가에 늘어서 있는 아름드리 오동나무들을 만나게 된다. 옛말에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오동나무는 딸이 커서 시집갈 때 혼수로 가구를 만들어 보낸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옛말 중에 ‘봉황은 대나무 열매만 먹고 오동나무에만 동지를 튼다’고 했으니, 예로부터 오동나무는 서민들의 실생활에서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다.

사실 커다란 오동나무를 보기가 쉽지만은 않다. 보통 오동나무는 20~30년 정도면 다 자라고, 쓰임새도 다양해서 자라기 무섭게 베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동나무의 목재는 재질이 부드럽고, 습기와 불에 잘 견디며, 가벼우면서도 마찰에 강하다. 말라도 틈이 생기지 않고 썩이 먹지 않아, 특히 가구나 악기를 만드는데 최상의 재료가 된다. 또한 오동나무는 살충효과가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 안에 오동잎 몇 장을 넣어두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줄어든다고 하여 옛날 시골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더불어 오동나무의 잎은 다른 잎에 비해 유난히 커다란데,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낙엽이 질 때에 그 소리가 크게 난다. 그러다 보니 외로운 사람에게 비 내리는 날의 오동잎은 서러운 빗소리를 더욱 크게 들리게 하고, 세월 가는 것이 싫은 사람에게 오동잎 지는 소리는 세월의 무상한 흐름을 더욱 슬프게 느끼게 했다.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오동잎’이라는 옛날 가요가 생각난다.
서툰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길을 계속 걸어본다.

4. 상대마을

드넓은 감나무 과수원을 가로질러 돌레길이 이어진다. 엄연히 과수원의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왠지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잎들과 탐스럽게 열려있는 감들로 가득 찬 과수원을 걷고 있으니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다. 더 놀라운 건, 과수원 안에 있는 돌레길 벤치 위에 감이 들어있는 상자가 놓여있는데, 그 옆엔 주인이 손수 썼을법한 ‘맛보고 가세요’란 풋말이 세워져있다. 돌레길을 걷다보면 보통은 ‘농작물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풋말들만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선 정반대인 셈이다. 맘 편히 맛보고 가시라니. 어쩌면 감나무 과수원의 주인이야 말로 살아있는 부처가 아닐까(웃음) 때마침 과수원 주인으로 보이는 인상 좋으신 분이 저쪽에서 걸어오신다.

“돌레길을 처음 연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은 공간이고 사람들이 여길 지날 때 좋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허락을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유지를 가운데를, 큰 땅덩어리를 가로지르는 곳이 없다고. 그래서 좀 특별하구나, 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더라고요. 돌레길에 하루에 많으면 한 열 명, 적으면 평소엔 한 두 세 명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반가와요. 거기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처음에 손님이고 저희 집에 온 사람들이고 한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상처 난 감들을 하나씩 다 따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멀뚱멀뚱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조그만 상자에다가 내가 따다 놓은 거니까, 주인이 따다 놓은 거니까 드세요, 하고 써 놓고 몇 개를 따다 냈는데, 드신 분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계속 해 봐야겠다.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돌레길 자체가 자연하고 소통하고 인간과 소통하면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과 소통할 길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 돌레길 쭉 걸어봤는데, 아무도 저한테 말 걸어주지 않고요, 아무도 저한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 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 마디 건네기 힘들었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 지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 냄새 날 수 있고, 인사 한 마디 건넬 수 있고, 인사뿐만 아니라 여기 오가는 사람들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씩 실천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과수원 주인분의 말씀을 들으며 탐스럽게 생긴 감을 깨물어본다. 입 안 가득 달콤한 기운이 퍼진다. 그리고 그 달콤한 기운은 감을 키워낸 주인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온몸 가득 퍼진다.

5. 대전리 석불입상

상대마을의 저수지 끝부분 후미진 곳에서 석불입상을 만난다. 이 일대를 ‘미륵골’이라 불러왔고, 옛날엔 꽤나 커다란 규모의 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헌으로 전해오지는 않는다고 한다. 석불 앞에 서서 찬찬히 불상의 모습을 바라본다. 세월의 풍파로 눈, 코, 입을 잃어버린 불상의 얼굴이 왠지 측은하게 느껴진다.

‘대전리 석불입상’이라 불리는 이 불상은 비록 이목구비는 사라졌지만, 계란형의 온화한 얼굴 형태가 남아있고 소라껍데기처럼 틀어 말린 머리모양도 희미하게나마 보인다. 솟아 오른 정수리 뼈를 뜻하는 육계 또한 크고 넓게 남아있고, 법의는 양 어깨를 모두 덮는 큰 비단의 모습이다.

발밑으로 불상을 받치는 대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또한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불상 옆으로는 머리가 깨진 작은 석상이 서있는데, 이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있는 인물을 묘사한 ‘공양상’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점은, 이 공양상이 화엄사의 사사자삼층석탑 앞에 있는 석등 밑의 공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양상의 전체적인 모습이 화엄사의 석등과 비슷한 형식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는 공양상 주변에 두 개의 석주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상의 목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잘려있던 것을 다시 붙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누가 왜 불상의 목을 베었고, 공양상의 머리를 깨어버렸을까.

옛 사람들이 우주 만물의 창조신으로 여겼던 비로자나불이기에 이처럼 초라해진 불상의 모습이 더욱 애처롭다.

하지만 불상 앞에 제기들과 정화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 불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듯이 보인다.

그나마 마을 주민들과 아직도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6. 남악사터

아스팔트 길 옆으로 난 작은 샛길로 들어서면 제법 넓은 공터가 나타난다.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자칫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지금은 황량하게 버려진 공터로만 남아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주관하여 지리산 신에게 제사를 모시던 남악사가 있던 곳이다.

이 남악사의 역사는 신라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지리산은 토함산, 계룡산, 태백산, 팔공산과 함께 오악이라 하였고, 그 오악 중 지리산은 남악이라 불리었다. 신라시대부터 매년 나라에서 제관을 보내어 지리산 천왕봉과 노고단 등에서 제사를 올렸는데, 이는 지리산 산신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중요하게 치러졌다. 그리고 이러한 남악사의 전통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노고단에서 올리던 제사가 이곳으로 옮겨 온 것도 조선시대부터였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유교이념을 지도사상으로 하던 조선시대에까지 ‘왜 산신제의 전통이 이어졌을까?’ 하는 점이다. 그건 아마도 조선초기의 중앙권력이 지역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상황에서 ‘민간의 신앙을 국가에서 주관’함으로 지역단위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겠다.

조정에서는 남악사를 노고단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제사를 지내는 동시에 당시 구례 지역에서 유행하던 ‘도참사상’을 억압함으로써 왕권을 중앙으로 모으고 있었다.

이렇듯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길게 이어져온 남악사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때 간섭이 심해 지던 1908년에 폐사되고 만다.

비록 광복 후 구례의 뜻있는 인사들과 군민들의 주도로 화엄사의 일주문 오른편에 남악사를 새로 건립하여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래의 ‘남악사 터’였던 이곳은 이렇게 황량하게 남아있다. 마치 이곳이 옛 남악사 터라고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시멘트로 만들어진 제단만이 쓸쓸히 놓여있다.

7. 구례 예술인마을

당동마을에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낮은 풍경에 놀라게 된다. 마을 저수지를 바라보는 언덕 곳곳에 지리산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과 조형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나 펜션촌이라고 하기엔 풍기는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명 화가마을이라 불리는 구례 예술인마을이 이곳 당동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개성을 드러낸 현대적인 건물들은 모두 창작과 주거 기능을 갖춘 작업실이라고 한다. 화가, 건축가, 사진작가, 디자이너 등 내로라하는 예술인 30여 가구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건물들의 형태는 조각과 회화, 사진 등 장르의 성격에 맞게 화가들이 직접 꾸몄다고 한다. 구례 예술인마을은 이렇듯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섞여있는 듯 낯설면서도 신기한 풍경을 그려낸다.

이 마을에 입주한 예술인들에 따르면 섬진강과 지리산을 비롯한 구례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원들이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강원도에 비해 겨울에도 춥지 않기에 예술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작업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기에 예술인 마을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예술인마을이 단순히 예술인들만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그친다면 곤란할 것 같다. 인근의 지역 주민들과 둘레길을 걷는 이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우러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술인마을다운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다행스러운 점은 작가들의 작업실엔 각자의 전시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작은 규모로나마 자신의 작품을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구례군에서 미술관을 지을 계획도 세워놓았다고 하니, 구례의 지리산 자락을 예술의 정취로 흠뻑 적실 수 있는 예술인마을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8. 할머니 당산나무

마을 안쪽으로 할머니 당산나무가 마을을 보듬고 있다.

마을 위쪽의 할아버지 당산나무와 더불어, 마을의 안과 밖을 굳건히 지켜주려는 듯 오랜 시간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당산나무.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처럼 난동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 당산나무는 말없이 마을을 끌어안고 있다. 당산나무 근처에서 만난 어르신은 마을 당산제에 관한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사뭇 흥미롭게 느껴졌다.

난동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 당산제를 지낸다고 한다. 먼저 할아버지 나무가 있는 윗 당산에 제사를 올린 후, 곧바로 할머니 나무가 있는 아랫 당산에서 제를 마무리한다. 원래는 정월 보름 새벽에 당산제를 지냈지만, 10년 전부터 정월 초하루로 날짜를 옮겼다고 한다.

당산제를 총괄하는 제관은 마을회의를 통해 당산제 일주일 전에 선정된다. 제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일주일간 집에서 근신하며, 굶은 곳에 가는 것도 삼가고, 부부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또한 당산제에 쓰이는 제물은 마을의 당산답 즉 ‘당산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논’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마련하는데, 제물을 구입할 때에는 물건 가격을 흥정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원래는 당산제 4일 전에 당산 주변으로 창호지가 끼워진 금줄을 치고 황토도 뿌려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난동마을에서는 제일 좋은 황토를 골라서 당산나무 앞 제단을 바르는 풍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한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점차 당산제를 비롯한 농촌마을의 옛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이기에, 아직까지 당산제의 전통이 살아있는 난동마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당산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을 당산제가 열리는 음력 정월초하루에 이곳을 다시 오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해본다.

9. 할아버지 당산나무

마을을 굽어보는 듯 커다란 소나무가 우뚝 서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의 소나무가 난동마을의 할아버지 당산나무라고 한다. 얼핏 보면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십여 그루의 소나무들이 기이하게 얽혀있는 모습이다.

언젠가 보았던 하동의 '십일청송'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작은 소나무 숲 가운데를 보니 조심스레 쌓아올린 조탑이 있다.

그렇다면 이 소나무들은 비바람으로부터 이 조탑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일까?

조탑은 아직까지도 전라도 산간지역의 마을 입구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주로 주변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쌓고 윗돌을 올려놓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당산제와 비슷하게 해마다 탑제를 모시는 마을도 있다. 주로 마을의 허한 곳을 다스리거나, 재물과 복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의미로 세우기도 한다.

난동마을의 조탑은 군에서 정비를 하기 이전엔 나즈막한 돌무덤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조탑과는 다른 모습인데, 흥미로운 건 이를 우리 옛사람들의 풍습이었던 호환과 돌무덤에 연관하여 추측해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옛날엔 호환, 즉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마을 밖의 돌무덤에 묻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호식총'이라 불렀다고 한다. 대개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머리와 신체의 일부를 남겨둔다고 한다. 이러한 호식의 흔적을 찾으려면 마을 사람들은 이를 잘 거두어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한 후, 곧바로 그 위에 돌을 쌓아 돌무덤을 만들었다. 사악한 기운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 놓은 채, 그 후손도 찾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이를 피하면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난동마을의 할아버지 당산나무에 있었던 조탑도 그 옛날의 이름모를 마을사람의 호식총은 아니었을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돌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어느덧 마을의 조탑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었던 것일지도....

10. 지초봉과 구리재

그늘도 없는 임도를 한참 걸어 올라가 마침내 구리재에 오른다. 한여름의 피약별 아래라면 덥고 힘든 길이겠고, 모자가 없다면 더욱 당혹스러운 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구리재에 올라 서면 지리산이 감싸고 있는 구례 분지의 멋진 풍광을 한 눈에 볼 수 있기에 흘린 땀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 내친 김에 지초봉까지 올라간다면 간미봉에서 종석대로 굽이치는 지리산 능선도 감상할 수 있다.

지초봉은 한약재인 지초(芝草)가 많이 자라 그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지초의 자줏빛 뿌리는 천연염료를 얻는데 많이 이용되었는데, 삼국시대 때부터 벼슬의 최상위를 나타내는 자색을 이 지초로 염색했다고 한다. 또한 혹자는 지초가 불로초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한다. 옛날엔 지리산이 방장산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부하를 보냈던 세 개의 산 중 하나가 바로 지리산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지초봉엔 그 이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오는데, 지리산의 다른 봉우리들도 그 이름과 관련된 저마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산의 이름만 자세히 살펴봐도 옛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무엇을 기원했는가를 추측해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리산의 천왕봉과 반야봉은 불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사찰에 가면 근엄한 표정으로 천왕문 앞에 서있는 사천왕들을 볼 수 있는데, 천왕봉은 이러한 천왕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봉우리들 중의 으뜸이 천왕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천왕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였다. 그러니 그 이름으로 따지자면 천왕봉은 문지기 같은 변방의 산이라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리산에 수십 년간 발품을 팔며 올랐다고 자부하는 산사람들은 지리산의 중심 봉우리로 천왕봉이 아닌, 반야봉을 꼽기도 한다. 이는 ‘반야’의 뜻과 아울러, 그 봉우리가 지리산 봉우리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따져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반야’는 만물의 참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최고의 지혜를 일컫는데, 그 최고의 지혜인 ‘반야’에 이르러 해탈한 자가 바로 깨달은 자, 부처인 것이다.

천왕과 반야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 이름에는, 금강이나 문수, 관음 등의 명칭이 흔히 붙는데, 이들 역시도 불교에서 유래한 것들이다. 노고단의 옛 이름인 길상봉의 길상도 운수가 좋을 조짐이라는 뜻의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 노고단이라는 현재의 이름은 민속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선 할머니를 모시는 단’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돌레길을 걸으며 지리산의 지명이나 마을 이름들의 뜻을 헤아려보는 것도 돌레길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 역사가들이 땅의 이름을 가리켜 ‘역사의 지문’이라 했으니, 손금을 보듯 하나하나 지명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어느새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유물이다.

11. 구례 수목원

숲 속 오솔길을 걸으며, 다양한 야생 꽃들을 만난다. 야생 꽃들은 비록 한 곳에 뿌리박고 평생을 살지만,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무성한 잎과 꽃을 피워내면서 한순간에 숲을 점령한다. 그리고 불꽃같은 생명력을 모두 소진한 후엔 자신을 퇴역낸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끊임없이 일어섰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하는 야생 꽃들로 인해 숲은 잠시도 같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변화를 계속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는 숲은 찰나의 모습일 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도 꽃들은 끊임없이 피었다 사그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렇듯 계절에 따라 지리산의 풍경을 바꾸어놓는 야생식물의 종류는 3,000여종이 넘지만, 안타깝게도 그 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물론 사람의 책임이 크다. 길에서 만난 생태해설가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한 채 이런 말씀을 건네 온다.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만이 그 숲이 숲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데요, 단체로 오셔서 관광차 30명, 40명 오셔갖고 숲에 사는 나물들을 풀이라든지 나물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가세요.

그러면서 멸종 위기종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슴도 아프고."

지리산의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례 수목원이 지초봉 너머 광의면 일대에 야생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지리산의 식물자원을 보존함과 아울러 다양한 식물 종들을 체험할 수도 있는 값진 공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목원이나 생태공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보다 먼저 둘레길에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지켜내는 것이 더 큰 숙제가 아닐까

그래야만 지리산이 주는 자연 그대로의 힘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생태해설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돈다.

"제가 여기 숲에 와서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됐거든요..."

12. 탑동마을 당산나무

마을 한 가운데 서있는 아름다리 당산나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뿌리까지 드러낸 채 우뚝 서있는 모습에서 마을 당산의 위엄과 기품이 단번에 느껴진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당산나무 아래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돌레길 여행객들에게 쉬었다 가라며 스스럼없이 손짓하는 어르신들도 계신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정감 어린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당산나무 그늘에 앉아본다.

탑동마을에는 탑에 대한 기록 외에는 마을에 대한 기록들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마을 당산제를 지낼 정도로 옛 전통이 길게 이어져 내려오던 마을이다. 당산나무 아래에서 만난 어르신은 생생하게 옛 당산제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신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도 얼음을 깨고 목욕하고 와서 당산제를 모셔. 내가 마지막 축관을 했어. 빨간 흙을 퍼다가 동네 입구마다 뿌려 잡귀 못 들어오게 하고, 상주들은 여길 못 들어와. 하여튼 기가 맥히게 당산제를 모셨어. 여기는 할아버지 당산 모시고, 저 아래는 할머니고. 잘했는데, 근년에 와서 미신 타파한다고 해서 그래야 잘 산다는데 옆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해버리니까 서로 안 모실라고 해.

그렇게 힘들게 당산제를 모셨어. 내가 당산을 모시고, 축관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긴 세월 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고, 또 조용히 지켜보았을 당산나무가 새삼 더 커다랗게 느껴진다. 비록 당산제는 사라졌지만 말없이 서있는 이 당산나무 안에 마을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한겨울 얼음을 깨고 목욕재계를 했던 마을 어르신의 기억을 이 나무 또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조용히 당산나무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본다.

13. 탑동마을 탑 앞

탑이 있는 마을이라는 이름의 ‘탑동마을’

역시나 마을로 들어서자 영성하게 세워져있는 작은 돌탑이 눈에 띈다. 열기설기 세워진 품이 측은해 보이기까지 한데, 알고보니 도굴당해 무너져 내린 탑을 마을 사람들이 손수 복원해놓았다고 한다. 원래는 삼층이나 오층석탑이었을 거라 추측되지만, 2층의 몸돌과 상륜부가 없어졌다. 또한 탑 주변에 서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석등 대석과 간주석이 탑의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다. 어떻게든 제 모습을 끼워 맞춰 보려고 애를 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백제 때부터 탑에는 보물이 있었어. 지금은 보물이 없는데. 누가 밀어붙고 그것을 갖고 갔다 그거야. 그래서 다시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어놨다고.”

대개 탑이 들어가는 지명의 마을은 절터였던 곳이 많다.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스스럼없이 탑과 절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저걸 추정할 때 백제 시대 때 절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옛날 일은 잘 모르고, 이쪽에 샘이 하나 있는데, 우물 정자로 돌을 딱 널빤지 마냥 깎아 가지고 사방으로 짜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절샘이라고 전부다 옛날 어른들이 절샘이라고, 그 절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좌우간 절이 있어가지고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탑동마을은 함부로 외지 사람을 들이지 않는 반촌이었다고 한다.

즉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많이 거주했던 보수적인 마을이 시대가 변하여 구리재로 넘어가는 길목을 열어준 것이다. 둘레길이 생기고부터 탑동마을을 가로질러 구리재를 넘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빈번해졌는데, 아직까지 마을 어르신들은 이를 썩 반기지시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 이리 지나가면 은 마을 사람한테 별 이득은 없지.”

“득보다 실이 많아.”

“피해가 더 많아.”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우리 문 앞에 호박이 달랑달랑 이쁘게 달렸는데, 그걸 따가드라~ 따가서 그러니까, 그걸 주고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개 따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그거 보기 좋게 하려고 여러 사람 보라고 달랑달랑 하게 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여. 어쩌다 한 사람씩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에도 탑동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둘레길을 열어주었고, 그 길에서 우리는 잊혀져가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외지인들을 맞이하는 마을의 인심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14. 산동면

면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이어서일까, 이곳 원촌은 다른 시골마을 보단 좀 더 도회적인 풍경을 갖고 있다.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며, 그럴 듯한 모양새의 양옥집들에, 번듯한 학교들까지, 농촌마을 치곤 제법 세련된 모습이다. 원촌마을은 조선시대 나랏일로 출장을 다니던 관리들이 묵었던 원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니, 이 땅의 변화로움은 예로부터 이어져오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산동면사무소가 이 원촌마을에 들어선 것도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리라.

구례군의 가장 북서쪽에 있는 산동면은 어미의 품을 파고드는 아이처럼 지리산을 향해 있다. 산동면을 거드랑이춤에 살포시 끼고 앉은 산자락은 특히나 산수가 맑은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이곳엔 동양 최대의 규모와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이 자리하고 있다.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성분을 가진 지리산 온천수는 피부병과 성인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 효능을 듣고 알음알음 찾아오는 사람이 늘면서 언젠가부터 산동면을 낀 지리산 자락은 '지리산 온천랜드' 라는 거대한 관광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산동 사람들은 종종 '주변에 큰 관광지가 생겨서 살림 좀 쫓겠어요' 라는 질투어린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지리산 온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뿌리고 간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온천 주변에 호텔과 펜션을 짓고, 으리으리한 음식점을 내서 주머니를 불리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 들어온 장사꾼들이다. 온천이 개발된다는 말에 발 빠르게 지리산으로 몰려온 도시 사람들이 싼 값에 산동 땅들을 사들였고 혈값에 땅을 판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가꾸어온 삶의 터전을 등져야만 했다.

땅을 지키며 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는 않았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펜션이나 음식점을 낼만한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고, 애써 기른 농작물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이 버린 오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만 지켜봐야 했던 것이다. 지금도 인간이 부려놓은 욕심에 지리산 물줄기는 점점 말라가고, 지리산에 기대어 소박한 삶을 일구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은 하루하루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

온천랜드를 지나 험한 바윗길을 타고 오르면 용소계곡이 나온다. 아직은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바닥의 모래 한 알까지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용소계곡엔 전설이 하나 전해온다. 옛날 지방을 순찰하러 길을 가던 감사가 산동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는데, 간밤 꿈에 흰옷을 입은 도인이 나타나 자기 아들 3형제를 살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하인은 용소에서 잡아온 아침 찬거리라며 잉어 세 마리를 내밀었고, 감사는 간밤 꿈에 도인이 말한 아들 삼형제가 이들 잉어인 듯 하여 다시 용소에 놓아주라 명하였다. 그날 밤 꿈에 다시 도인이 나타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물러갔다. 이 꿈을 기이하게 여긴 감사는 다음 날 용소로 직접 나가 용을 보고 싶노라 소원을 빌었다. 이에 정말 용이 나타나 꼬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흥이 난 감사는 몸을 보고 싶다고 하였고 용은 허리를 물 밖으로 드러내 보였다. 욕심이 생긴 감사는 이번엔 머리를 보여 달라고 하니 용소 위로 불쑥 용머리가 솟아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위용 때문에 감사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소박한 소원에 그쳤더라면 그저 진기한 구경으로 끝났을 일이, 분에 넘친 욕심 때문에화로 번져버린 이야기. 용소계곡에 담긴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리산 온천의 역사와 겹쳐 보인다. 자

연이 준 선물을 그저 감사히 받고 조출하게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늘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가. 더 늦기 전에 그 헛된 욕심을 거두어들이라고, 땅밑을 흐르는 물길은 그렇게 뜨겁게 소리치고 있는지도 모른다.